

“신앙·수행 무섭게 하라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다”

항봉 스님

講論

참불교 참사람에 이르는 길

두 번째 법주로 나선 항봉 스님(익산 사자암)은 8월 16일 열린 법석에서 근래 20여 년 동안의 종교적 체험을 중심으로 법문했다. 스님은 “인간의 감각기관 중 ‘입’ 아닌 것이 없어 구업(口業)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을 바로 일면 경전도 스님도 의지하지 않고 정법을 만난다”고 설명했다.

또, 스님은 “20년의 침묵을 깨고 나선 첫 법회가 오늘이 자리”라며 “그동안 종교적 체험 했으니 이제 어느 곳이든 찾아가 법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스님의 강론이다.

나이 마흔이 됐을 때, 간절히 생각이 들었다. ‘영혼은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면 영가천도가 될까?’ 등 그런 궁금증이 나를 인도로 가게 했고 그곳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그 순간이 어떠한지 그것은 드러낼 일도, 가르칠 일도 아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동진출가해서 학문적인 교양을 쌓지 못했다. 그래서 인도에 갔을 때 참 간절했다. 간절히 만큼 공부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돈 화두가 ‘무(無)자’였다. 달력을 보면, 망망대해를 보면 눈물이 나고 한국이 그리웠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다는 각오를 했다. 우연히 달력을 넘기는데 환하게 불이 쬐였다. 조명이 쬐진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었다. 그 빛은 나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아름다운 체험 이후로 20년간 말을 하지 않았다.

중국에 가서 내가 아는 불교가 맞는지 공부했다. 부처님 경전을 통해 소승이든 대승이든 내가 본 세계가 정확한지 공부했다.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익산 사자암에만 기거했다.

<천수경>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구업이다. 신·구·의(身口意) 삼업 가운데 악구(惡口), 악담, 양설(兩舌)이 간질 시키는 말, 기어(綺語), 꾸미는 말, 망어(妄語; 거짓말) 등 구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많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손과 눈만 천 개가 아니다. 귀나 코도 천 개이다. 우리 몸에는 아홉 개의 입이 있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고, 눈은 보는 입이고, 귀는 듣는 입이다. 따라서 정구업(淨口業)의 바른 해석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마땅히 머무는 바없고 그 생각을 내라’고 해석한다. 이것을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로 바꿔보자. 생로병사는 모두 집착에서 온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하루에 천만 가지 생각을 한다. 너무 피곤하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에 문제가 생긴다.

팔만 장경의 핵심은 중도(中道)와 연기법적이다. 그러나 중도(中道)에 대해 많은 스님들이 해매고 있다. 경전에서 소나의 거문고 타는 모습을 인용해 유교의 중용과 같은 의미로 중도를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거문고 줄이 팽팽하면 소리가 맑지 않다. 느슨하면 둔탁하다. 좋은 소리를 내려면 줄이 고르게 되어야 한다.

<중용(中庸)>은 인(仁)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생활의 기본 덕목으로 삼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온당하게, 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알맞게 덕과 도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불교의 중도사상(中道思想)은 중용과 근본을 달리한다. 중용이 양변불락(兩邊不落)사상이라면 중도는 양변무애(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사상이다. 불교의 중도에는 좌우가 없고 변두리가 없는 것이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쪽인가?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해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한다. 그럼 서쪽은?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부터 해지는 곳이다. 어렵지 않다. 모서리에 앉아도 내가 앉으면 그곳이 중앙이다. 무하마드가 태어난 곳의 명칭이 메카로 바뀌었다. 어느 곳에 서 있어도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며 세상의 주인인 것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목탁소리에 의해 운명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참회하면 업장이 녹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제 선사는 불교의 중도를 ‘수취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真)’으로 설명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시작해 ‘즉심시불(卽心是佛) 심외무불(心外無佛)’ 등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과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의 최후 유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번뇌가 보리요, 중생이 곧 부처’라고 <법화경> 등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 나 대신 그것을 해 줄 사람은 없다. 부처는 어렵게 전달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 적이 없다. 진리는 내 주변에 널려있다. 진리와 함몰이 될 수 없는 것은 집착의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서다. 부처님이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같은 이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다.

오늘이, 금생이 제일 중요하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우울하다거나, 돈 없다고 불평하면 안된다. 살아 있다는 자체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가정은 안 살피고 밖에만 잘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맞아야 한다. 내 몸, 내 가족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네 마음을 게을리 하지 말



항봉 스님.

“살아있는 오늘이 소중” 불교는 오늘의 종교 경전·스님에 의존 말고 스스로 마음 열어야

라. 네 마음의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말했다.

<성경>에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고 써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구하지 말라, 구할수록 마음이 어지럽다. 두드리지 말라. 언제나 문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열거나 훑통통한가?

오늘날 한국불교는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는 승려에게 의지할 일도 경전에 의지할 일도 아니다.

예를 들어 커피맛, 김치맛을 언어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먹고도 설명 못하는 것은 그것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금강경>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모두 녹아들어있다. 경전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스님에게 의지해서도 안 된다. 내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12연기는 연기법칙의 큰 틀이다. 부처님은 연기를 순역(順逆)으로 꿰뚫어 깨달음을 얻었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는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연기를 역순(逆順)으로 풀었다.

성철 스님은 “12연기는 순관이든 역관이든 설명이 안된다. 깨달아야 알지 그 이전까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12연기를 설명할 수 있다. 순서로 배워둬도 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어도,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섞여도 노래가 완성되는 것처럼 순서로 설명해서도 안 되고, 역으로도 안 된다. 단지

그렇게 내열해 놓은 것 뿐이다.

인과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육도 윤회는 불교와 관련 없다. 부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부터 윤회설이 있었다. 육도 윤회를 불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가 ‘내생’ 있다. ‘없다’에 대해서 할 말이 아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마음이 열렸을 때나 닫혔을 때나 한 개체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뿐이다.

지킬 박사과 하이든은 하나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회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깎은 사과를 책상위에 두면 산화작용에 의해 순간순간마다 그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연기의 법칙에서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연기의 원리에서는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범천(브라흐만)을 인정할 수 없다, 나를 주재한다는 ‘거짓 나아트만’도 인정될 수 없다. 영원불변한 내가 없는데 무엇이 주체가 돼 육도윤회를 한단 말인가? 불교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겼다 하면서 다른 종교를 나무란다. 하지만 ‘나’를 주재하는 것을 아트만으로 규정하는 우리가 더 웃긴다.

꽃나무가 있다. 그 꽃이 뿌리로부터 땅에서부터 받아 들어서, 눈 귀 코 입이 작동할 때 꽃 향기도 인식할 수 있다. 박수소리, 주먹소리, 보면서 들으면서 분별하며 작동한다. 희노애락, 설행, 실망의 감정이 올

라온다. 살아있는 오늘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 수행은 무섭게 해야 한다. 참으로 간절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는 종교적 체험을 하고난 뒤 20년을 침묵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20년 동안 어둠이나 경전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스님에게 “물속에 담긴 달을 보면 꺼내달라”고 했었다. 그 스님은 내게 말하길, “그 달이 연꽃으로 피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머리굴러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누가 뭐라 해도 담당하다.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담당하고 넉넉해진다. 자유로워진다. 내가 본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좋은날이 된다. (다음은 현자 스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요약)

도법 스님: 스님의 해석 가운데 ‘도도 입이다’ ‘눈도 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원래대로 경전을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항봉 스님: 아무리 유명한 학문이라 해도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있어야 학문이 발전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단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했을 뿐이다.

재연 스님: 경전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약속이 있지 않은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전의 의미를 국한하지 말고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원래의 것은 꼭 있어야 할 바탕이고 새로운 해석은 그 다음이다.

항봉 스님: <천수경>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이다. <천수경> 자체도 위경이나 제대로 이해하려면 확대해석도 필요하다.

화엄학림 학인스님: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나 아트만 등 항봉 스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불교가 전해져 신도들에게 끼칠 우려도 있다.

항봉 스님: 한국은 교학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 같다. 동국대 불교대학도 일본 불교학을 연구할 표할 뿐이다. 토시 몇 개 고쳐 그대로 교재로 삼고 있다. 한국 불교학자들은 수직으로 학문을 파고 들지 않는다. ‘정구업진언’에 대한 내 해석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독교 이단 해석이 아닌데도 도법, 실상사 주지스님, 화엄학림 스님 모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한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천수경> 문제는 넘어가자.

특별취재팀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샐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리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정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애인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날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운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게 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동협 : 032-12-193445 이상하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 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 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응궁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에 의해 1년을 또 고속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를 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복으로 품유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동협 032-12-193445 이상하